

[무형문화유산]

춤·음악·음식 문화의 전통 의례 ‘도채’

– 이족 전통춤 지킴이 전국인대 대표, 문화 전승과 농촌 진흥 두마리 토끼 다 잡아

운남성 대리바이족자치주 남간(南涧)이족자치현의 한 결혼식 피로연에서 이족 전통춤 도채(跳菜) 음악이 울려 퍼진다. 이족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한 여성이 쟁반을 머리에 이고 흥겨운 리듬에 맞춰 음식을 식탁으로 나른다. 그는 전국인대 대표이자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이족 타가(打歌, 결혼식 때 추는 전통춤)’의 성급 대표 전승자인 로려화이다.

‘도채’, ‘타가’ 등 이족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남간현은 ‘중국 민간 도채 예술의 고장’으로 불린다. ‘대채무(抬菜舞)’로도 불리는 도채는 지난 2008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되었다. 리듬을 타며 노래하고 춤추면서 현지 음식을 주방에서 식탁으로 옮기는 곡예와도 같은 이 전통춤은 춤, 음악, 음식 문화가 절묘하게 융합된 전통 의례로 오래동안 남간 및 주변 지역에서 전해져왔다. 이족은 연회에서 음식을 올릴 때 손님을 존중하고 경사로운 분위기를 북돋는 의미로 모두 이 전통춤을 춘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족 로동요인 산가(山歌)를 듣고 도채를 보며 자라면서 점차 이러한 민족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로려화는 전국인대 대표로 선출된 후 민족문화 전승과 농촌 진흥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고향의 경제적 발전과 민족문화 계승, 혁신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생각에 마을 곳곳을 다니며 도채팀을 조직하고 산가 기예를 전수했다. 도채와 외식, 웨딩, 관광 등 업종 융합을 추진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한 것이다.



▲ 일전 남간현 웅정촌의 한 농가 결혼식에서 도채 공연을 하고 있는 전국인대 대표 로려화(왼쪽 앞)

남간 도채와 무량산 살구꽃 골짜기 관광이 연계돼 관광지에 무형문화유산 전시, 공연이 마련되면서 주민들은 농사외에도 공연, 써비스 등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무형문화유산 전승은 기예를 전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족정신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로려화는 소수 민족 문화 보호와 전승을 위해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고심했다. 최근 수년간 그는 학교 캠퍼스, 사회구역에서 무형문화유산 활동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남간현의 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 상시 교육을 실시했다.

또 마을에서 이족 전통 노래와 춤 전시와 공연을 펼치고 이족 도채, 타가 등 기예를 문화예술 종사자와 애호가들에게 전수했다. 남간현은 최근 수년간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했다. 그중 100개의 도채팀 육성, 100명의 도채 예술인 양성, 100개의 도채 무대 건설, 100개의 도채 마을 구축, 100개의 도채 삼정지원 등 내용을 담은 ‘5개 100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로려화가 속한 현급 예술단 외에도 남간현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수많은 도

채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민족문화가 살아나면 마을에 혼이 생겨납니다.” 로려화는 끊임없는 공부와 조사연구를 통해 민족문화가 농촌 진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그는 민족문화 전승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깊은 고민을 가지고 이번 방화에 참석했다. 그는 모든 산가 가락마다, 도채 동작 하나 하나마다 농촌 진흥의 힘이 담겨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 신화넷

무용극 따라 해외에 전파되는 중국 문화 예술

상해가무단의 무용극 <따오기(朱鹮)>의 일본 순회 공연이 일전에 막을 올렸다.

무용극 <따오기>는 일본민주음악협회의 초청으로 66일간 일본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0여개 도시에서 55회의 공연을 갖게 된다.

이번 공연을 포함하여 <따오기>의 해외 공연은 <따오기> 총 공연 회수의 3분의 1을 넘었으며 그중 일본에서의 공연 회수만도 135회에 달하고 미국 뉴욕의 링컨센터 등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무용극 <따오기>는 천년의 시공간을 초월한 작품으로 인간과 따오기의 교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보여주고 있다.

상해가무단 단장 왕연은 “무용극 <따오기>는 해외 관객들에게 중국 문화 예술의 매력을 보여주고 환경 보호 및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리념을 전



▲ 무용극 <따오기>의 공연 무대

달했다.”고 소개했다.

일본민주음악협회 대표리사 아마구찌 고치는 <따오기>의 주제는 전 인류의 공동 운명체와 연관되며 인간과 자연계의 생명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리념을 교묘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0년 상해엑스포 일본관의 전시

에서 령감을 얻은 무용극 <따오기>는 창작 초반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수차 섬서성 양(洋)현과 일본 사도를 방문하여 따오기들의 생활 습성을 깊이 파헤치고 조류 보호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4년 만에 창작을 마쳤다.

2014년 10월, 처음 일본 무대에

올려진 <따오기>는 따오기 멸종의 아픔을 겪었던 일본 관객들의 강한 공감을 자아내며 현지 매체의 주목을 받고 소셜미디어에서 열전 화제가 되며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다.

우리 나라 문화에서 길상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길조’로 간주되는 따오기는 일본 국민들의 큰 사랑도 받고 있다. 하여 일본의 니가타와 도쿄를 오가는 신칸센이 ‘따오기호’로 명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 악화와 인위적인 포획으로 따오기는 일본에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

1981년, 중국 과학자들이 섬서성 양현에서 마지막 7마리의 따오기를 발견했고 중일 과학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따오기는 번식을 이어가며 다시금 대중의 시야에 돌아왔다. 따오기의 운명이 시사하는 환경보호의 명제는 중국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세계에도 속한다.

/ 중국국제방송

다큐미니영화 《할 일이 있다》 선보여



녀성절 헌례 작품, “‘할 일’의 최전선에는 우리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우며 희생적인 여성들이 있다”



해마다 3.8 국제부녀절에 즈음해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에서는 우수한 여성들의 인격적 매력과 그들이 창출한 업적을 노래하는 영화들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에서는 3.8절 헌례 다큐미니영화 《할 일이 있다》를 제작해 시청자들에게 선보였다.

다큐미니영화 《할 일이 있다》는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 회원인 박정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는데 올해 69세인 박정자녀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황혼 인생길에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위안과 즐거움으로 못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는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의 주인공 박정자는 출궁하였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을 때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회복된 후 자기도 꼭 아픈에서 모대기는 사람들을 찾아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실제 사회생활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능력껏 도움을 주고 있는 마음 따뜻한 자원봉사자이다.

박정자는 귀국후 장애인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군체라는 것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나서면서 따뜻한 인정세대의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장애인의 집안을 청소해주고 음

식을 끓여주고 남새를 사다주고 함께 문화를 교류하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도 다정한 친구가 되어준다. 박정자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타나면 그들의 손발이 되어 부지런히 봉사에 나서는 것이 남은 여생의 신조로 굳어졌다.

영화는 모임으로 만나기로 했던 동창생들이 홀로 사는 독거로인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모두를 찾아나서는 화면으로 끝난다. 그러면서 영화는 호소한다. 우리 사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약소군체를 향해 달려가고... 박정자처럼 아픔의 그늘을 따스한 해살로 바꿔간다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 손룡호 회장은 “영화를 통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여생에 주위의 불우한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도움의 손길을 얹어줌으로써 불우이웃들도 삶의 파사로움 속에서 행복한 삶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할 일’의 최전선에 우리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우며 희생적인 여성들이 있다.”고 뜻깊게 말했다.

/ 안상근기자



중국 영화들 베를린국제영화제 빛내

제 75 회 베를린국제영화제가 일전 막을 내린 가운데 중국 감독 광맹(霍猛)이 연출한 향토 소재의 영화 《삶의 터전(生息之地)》이 은곰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는 2019년에 영화 《나의 아들에게(地久天长)》가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휩쓴 이후 6년 만에 중화권 영화가 유럽 3대 영화제 주요 경쟁부문에서 거둔 또 한차례 쾌거이다.

문안(文晏) 감독의 《날고 싶은 소녀》도 주요 경쟁부문에 진출하며 중화권 영화계에서 두 작품이 동시에 베를린 주요 경쟁부문에 오른 진기록을 세웠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1990년대의 중국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한 이 두 작품은 각기 다른 스타일과 소재로 시대적 흐름 속 인물들의 운명을 조명했다.

《삶의 터전》은 어린이의 시선으로 하남성 한 마을의 관혼상제를 관조하며 군산극에 대한 탁월한 통제력을 통해 생명력이 넘치는 이 땅에 대한 사랑을 섬세하게 형상화했다. 《날고 싶은 소녀》는 문안 감독이 전작 《카니발》에 이어 녀성 서사를 한층 발굴한 작품으로 배우 문기(文淇)와 류호존(刘浩存)의 뛰어난 연기가 돋보인다.

/ 중국국제방송



▲ 제 75 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 감독상을 수상한 《삶의 터전》 포스터

‘숲의 도시’에 넘치는 문화 창 의 디자인



‘중국 숲의 도시’로 불리는 흥룡강성 이춘시는 최근 수년간 현지 립업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 창 의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사진은 한 수공예자가 ‘나타’를 테마로 침향목 공예품을 조각하고 있는 장면.

/ 신화넷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주산[程大位(程大位) 주산법]’의 전승인 왕소초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전통 주산 문화를 소학교 저급학년 수학 교실에 접목해 수학 공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교육 방식을 형성했다. 왕소초는 안휘성 황산시 둔계시 대위소학교의 수학 교원 겸 주산교원이다.

최근 몇년 동안 왕소초는 대위소학교에 주산반을 개설해 주산 지식을 보급하고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정대위주산박물관에 주산교실을 열었다. 또한 중국 건축 류파의 하나인 휘파(徽派)의 마두장(马头墙) 등 요소를 참고해 주판 외관을 혁신적으로

디자인했다. 왕소초는 “주산은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기능일 뿐만 아니라 중국 특유의 지혜를 담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주산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화넷

